

한국 新宗教 儀禮服飾과 思想에 관한 연구

— 甌山教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조교수 임상임

目 次

I. 서 론
II. 한국 新宗教 思想의 배경
1. 甌山教의 이해
2. 新宗教 思想에서의 甌山思想의 특징
III. 儀禮服飾에 표현된 新宗教 思想
1. 문헌에 나타난 복식관과 思想
2. 儀禮服飾에 나타난 思想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복식은 옷이라는 물체에 사람의 뜻과 정이 전해 지면서 인간의 의식으로 느끼고 살필 수 있는 것이 되므로, 먼저 복식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복식과 사회적 변동 및 그 시대를 영위했던 사람들의 思想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 복식의 의미를 파악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복식의 현대적인 의미에 귀결함과 동시에 복식의 진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 本人은 이미 제 1단계로 한국 新宗教 儀禮服飾에 대한 줄고²⁾에서 각 新宗教 儀禮服飾의 형태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므로, 本考에서는 다음 단계로 한국 新宗教 思想이 그들의 儀禮服飾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는 내적인 봉건 질서의 중요와 서구열강의 진출에 따른 무력 위협의 민족적 위기속에서 한국적인 종교에 의한 구원의 도리를 主唱하며 민중을 이끌어 온 天道教, 甌山教, 大倅教, 圓佛敎 등의 새로운 종교 운동들이 있었다.³⁾ 이들 新宗教는 개화기, 일제 침략 기간 등 한국 역사의 단절이라는 비운의 시기에 대부분 창교되었다. 또한 각 創始者들은 사회의 선각자로서 그

*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백영자, 김미주, "근대 한국복식 분석(1)",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3집, 1984, p.78

2)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Ⅰ)", 복식 제19호, 한국복식학회, 1992

3) 김홍철, 김상일, 조홍윤, 한국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간행사

들이 깨달은 진리관과 세계관을 일종의 교리로 부각하여 종교 의식을 통해 민중들에게 思想을 보급시켜 민중의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민중층을 형성하는 역사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⁴⁾ 특히 天道教, 甌山教, 圓佛敎에서 제시하는 思想은 거의 공통적인 것으로 이들이 보급시킨 대표적인 思想은 宗教合一思想과 後天開闢思想, 民族主體思想, 人間中心思想, 社會改革思想 등이다.⁵⁾ 이들 思想에서 이끌어내어지는 哲學的, 宗教的, 社會的 특징과 성격은 우리의 전체 精神史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⁶⁾

1995년은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日帝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들이 행해지고 있다. 國魂마저 마비된 당시에 민족혼을 이어 온 新宗教 思想을 그들의 복식을 통하여 살펴 보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新宗教 思想이 그들 儀禮服飾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먼저 甌山教의 儀禮服飾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복식문화를 통한 思想史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실물자료인 현재 착용되고 있는 儀禮服飾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택한다. 따라서 주관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근래 들어 學界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新宗團이 甌山界의 宗派라고 볼 수 있어⁷⁾ 본 연구내용과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 新宗教의 대표적인 思想에 대하여 먼저 甌山教 思想을 살펴 보며, 儀禮服飾에 표현된 思想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甌山教의 여러 분파 중 줄고에서 이미 儀禮服飾의 종류와 형태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는 彌勒佛敎의 儀禮服飾에 국한시켜 思想과 儀禮服飾을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국 新宗教 思想의 배경

1. 甌山教의 이해

甌山教은 1901년에 甌山 姜一淳(1871~1909)에 의하여 창교되었는데 甌山은 그의 호이며, 동학혁명기의 발원지인 전라북도 고부 지금의 정읍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터 道에 뜻을 두고 돌아 다니다가 全州 母岳山 아래 大願寺에서 1901년 31세에 도를 깨달았다.⁸⁾ 그때부터 그가 사망한 1909년까지 天地公事를 행했다고 하는데 이 9년간이 그의 교화 기간이다. 그는 자칭 天帝(玉皇上帝)요, 彌勒佛로서 보통사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奇行異蹟을 행하면서 일생을 살았으며,⁹⁾ 後天仙境界를 제시하였다.

甌山이 사망하자 새왕국이 건설되고 後天仙境界의 도래를 기대하던 宗徒들은 흩어져 태을교를 필두로 甌山의 思想을 가지고 각기 독자적인 포교를 시작하여 教團은 사분오열되어 수십개 분파의 甌山系統 新興宗教가 형성되었다. 현재에도 50여개 파가 활동하고 있으며,¹⁰⁾ 20여개의 분파가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甌山 교인들은 이같은 교파의 분열이 이미 甌山에 의하여 예정된 당연한 것으로 차후에 모든 교파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하나로 통일된다고 믿고 있다.

甌山教은 전래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외래의 宗教思想을 결집한 天地公事의 내용(解冤, 報恩, 相生, 造化) 표시를 教義로 수렴하고

4) 류병덕, 한국 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 p.12

5)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p.267

6) 김홍철, 앞의 책, p.267

7) 탁명환, 한국 신종교의 실상, 국종출판사, 1991, p.19

8) 대순전경, 원광사, 1987, 1장 1-33절,

9) 류병덕, 앞의 책, p.192

10) 류병덕, 김홍철, 양은용, “한·중·일 삼국 신종교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p.117

있다.¹¹⁾ 天地公事라는 말은 甌山이 교화기간에 가르치고 행한 여러 행적들에 대한 표현으로,¹²⁾ 과거의 모든 이념, 이법, 규범, 질서를 개혁하고 수정한다는 의미이다.¹³⁾ 天地公事란 天地의 運도를 뜯어 고치고 神明을 부러 造化를 일으키는 呪術의 祭儀이다.¹⁴⁾

甌山은 上帝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天地公事를 통하여 비겁에 처한 조선과 인류를 구원할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¹⁵⁾ 그리하여 甌山이 제시한 後天仙境世界는 先天의 모든 부조리가 제거되고 불안과 궁핍은 안정과 번영으로 바뀌며 天地를 폭발시킬 지경에 이른 殺氣와 재앙이 소멸되어 인류의 소망은 極樂의 世界, 淨土의 世界, 天國의 榮光이 지상에 실현되는 세계라고 하였다.

2. 新宗教 思想에서의 甌山思想의 특징

(1) 後天開闢思想

개벽이란 말은 하늘이 처음 열리고 땅이 처음 이룩된 천지창조를 의미하며, 이 개벽을 한계로 하여 천지창조 이전을 先天 그 이후 특히 황제 이후를 後天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온 것 같다.¹⁶⁾ 그런데 이와 같은 先後天 개벽에 대한 개념은 구한말 무렵부터 한국의 종교 사상가들에 의하여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後天開闢說을 주장한 東學의 水雲, 甌山教의 甌山, 圓佛敎의 少太山은 모두 자기들이 살았던 당시를 시점으로 그 이전을 先天, 그 이후를 後天으로 시대구분하고 先天의 특징을 어둡고 미개하고 혼란한 것으로 後天의 특징을 밝은 세계, 질서와 평등의 세계, 합

리의 세계로 규정짓고 있다.

甌山은 陰陽調和의 이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運道이며 이 운도의 법칙에 따라 先後天이 交易되는데, 그는 上帝의 권능을 가지고 말세운에 처해 있는 현대, 특히 한국의 운명을 뜯어 고치는 公事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세계의 諸神을 上帝의 권능을 가지고 소집하여 統一神團을 결성하고 先後天 교역기에 와서는 모든 불안정한 정서와 先天의 모든 불합리한 이법, 규범, 질서 등을 새로 규정하는 일을 하여 災祛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운수를 뜯어 고쳐 後天仙境이 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天地公事라는 것을 통하여 그가 살던 이전 先天의 낡은 세상의 낡은 운수를 쓸어내고 거기서 後天의 새로운 세상의 운수가 열리게 하여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대운의 발생기점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 甌山の 後天開闢思想이다.¹⁷⁾

이와 같이 甌山은 天地公事를 통하여 불의, 부정, 허례를 없애고 오는 세상에서는 땅도 하늘처럼 소중하도록 하고 人政公事를 통하여 앞으로는 사람이 높아지는 세상이 오며 마음 밝히는 公事를 통해 여성 상위 시대가 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2) 宗教合一思想

다종교의 教指를 절충 종합하여 교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宗教合一思想은 우리 민족이 옛부터 간직해 왔던 思想으로, 甌山思想에서의 宗教合一思想은 道優位的 思想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甌山の 儒·佛·道 등 종교에 대한 견해는 西敎를 가장 천시하고 儒·佛·道의 순으로 파거 종교

11) 이정립, 증산사상의 이해, 인동출판사, 1986, p.76

12) 김홍철, 김상일, 조홍운, 앞의 책, p.40

13) 류병덕, 앞의 책, p.306

14) 김태곤외 7인, 한국종교, 원광사, 1983, p.304

15) 류병덕, 김홍철, 양운용, 앞의 책, p.118

16) 김홍철, 앞의 책, p.102~103

17) 이정립, 앞의 책, p.138

를 부정하나 과거는 판이 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한다¹⁸⁾고 보고 儒. 佛. 道 三教 뿐 아니라 西教의 장점까지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⁹⁾

그러나 甌山思想의 전체적인 흐름은 三神의 실재함을 분명히 하며²⁰⁾ 불로장생의 仙境建設에 대한 이야기나 甌山의 많은 道敎的 행위, 甌山 생애에서의 道敎的 요소들을 보면 道優位의 조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民族主體思想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열강은 발달된 과학무기를 앞세워 세계를 점령하였고 그 여파는 동양에까지 미쳐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배경 속에서 新宗教가 성립되었다.

甌山은 강한 民族主體意識을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서양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과 그들의 횡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²¹⁾ “이제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자들이 이 일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²²⁾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따른 가르침은 從道들에게 外國排斥思想을 심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甌山은 앞으로 인류사회를 영도하고 이끌어 나갈 精神의 宗主國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있다. 그는 원래 上帝로서 하늘나라에 있었으나 신명들이 하늘에 올라와 지상의 劫厄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스스로 하강하여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인간으로 化現한 후 仙道, 佛道, 儒道 등 세계 각 종족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하고, 각 민족신, 문명신, 국가신 등을 불러들여 統一神團을 형성하고 甌山 자신이 天權을 대행할 장소를 朝鮮에 정하였다는 것이다.²³⁾ 그가 上帝의 자격으로 天權을 펼 장소로 수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朝鮮을 택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三界 大權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仙景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려 하였노라고 하였다.²⁴⁾

이와 같이 甌山은 한민족의 영원한 메시아적 구원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江山에 降世하여 天地公事를 통해 개혁의지를 펴니,²⁵⁾ 민족적 주체성 확립에 대한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4) 人間中心思想

新宗教 創始者의 思想에 있어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人間中心思想이다. 이들이 인간의 문제에 한결같이 역점을 두고 있음은 당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던 인간경시 풍조에 일대 경각을 준 것이며, 다른 한편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인류 부활 운동이 된 것이다.²⁶⁾

甌山의 思想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思想 중의 하나가 人間 中心的 思考이다. 甌山은 “天尊이나 地尊보다 人尊이 크니 이제 는 人尊時代”²⁷⁾라고 선언하며 개혁된 後天世界를 天權보다 人權이 앞서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

18) 대순전경, 앞의 책, 5장 3절

19) 김홍철외 2인, 앞의 책, p.69

20) 홍범초, 앞의 책, p.113

21) 김홍철, 김상일, 조홍윤, 앞의 책, p.74

22) 대순전경, 앞의 책, 3장 97절

23) 대순전경, 앞의 책, 5장 12절

24) 대순전경, 앞의 책, 2장 5절

25) 이현희, “중산사상의 민족사적 위치”, 중산사상연구 제7집, 1981, p.110

26) 류병덕, 앞의 글, p.21

27) 대순전경, 앞의 책, 6장 119절

한다. 그래서 과거 先天時代에는 인간이 하늘 보다도 아래에 있어 하늘의 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활동이 下界인 인간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天上의 신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龜山의 人尊思想은 동학에서 제시한 인내천 思想에서와 같이 인간과 신을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보다도 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龜山은 돌아오는 後天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지혜가 밝아져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세계 모든 일을 통달한다고 했다. 이는 인간의 지혜력을 위대하게 개발한 것이다. 또 오는 세상은 불로장생하는 仙境이 된다는 것과 神命이 인간을 공대하고 받든다는 것은 인간존엄의 절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²⁹⁾

그러므로 人尊思想은 과거 수백 년 이래로 부르짖어 온 소위 인권 회복 또는 人本運動의 계승 또는 이에 편승된 종계적 계시가 아닌 龜山 특유의 思想運動이라 할 수 있다.³⁰⁾

(5) 社會改革思想

龜山의 사회 개혁 방향은 억압받는 민중들 속에서 행해졌다는데 특징이 있다. 龜山은 “부유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는 나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노

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³¹⁾ 하여 그의 민중은 부유한 자도 강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아닌 약한 사람이었다. 요컨대 龜山의 민중 해방 운동에 있어서 그가 대상으로 삼았던 민중은 봉건사회 체제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짓눌리면서 반항조차 할 수 없었던 농민이요 천민이었다.³²⁾

龜山의 사회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만민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때는 解怨時代라 상놈의 운수니 반상의 구별과 직업의 귀천은 가리지 아니하여 속히 좋은 세상이 되리니...”³³⁾ 라고 하여 돌아오는 세상은 반상, 적서, 귀천, 남녀의 일체 차별이 종식되고 만민이 평등하게 살게 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며 모든 계급의 불식과 빈부 차별의 일소, 남녀 평등을 부르짖었다. 특히 “이때는 解怨時代라... 이 뒤로는 禮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³⁴⁾ 하여 오히려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仙天의 여성운리를 정립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⁵⁾

또한 龜山은 모든 허례를 그르게 여기고 이는 목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찬차 眞法이 아니라, 또 祭禮陳設法을 보고 이 역시 목은 하늘이 그릇 定한 것이니 찬수는 깨끗하고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 놓여 있는 위치로 인하여 귀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또 喪服 制度를 미워하고 이는 거지 죽은 귀신이 지은 것이라고 하여 세상에 전하여 온 모든 허례와 制禮陳設法과 喪服 制度를 그르게 여기고 後天의 새 天理에 입각한 새 윤리의 정립을 밝히고 있다.³⁶⁾

28) 김홍철, 김상일, 조홍운, 앞의 책, p.76

29) 김홍철, 앞의 책, p.76

30) 정춘화, “증산사상과 인간성 회복”, 증산사상연구 제1집, 1975, p.103

31) 대순전경, 앞의 책, 6장 14절

32) 김홍철, 김상일, 조홍운, 앞의 책, p.81

33) 대순전경, 앞의 책, 3장 106절

34) 앞의 책, 6장 134절

Ⅲ. 儀禮服飾에 표현된 新宗教 思想

1. 문헌에 나타난 복식관과 思想

彌勒佛敎는 甌山을 敎祖로 받드는 甌山敎의 여러 분파 중의 하나이며, 秀山 鄭寅杓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그는 1934년에 도를 깨치고 포교하던 중, 1940년 일본의 파멸을 기도하고 日皇勅을 불경했다는 죄목으로 8년 징역 언도를 받고 복역하다가 해방 후 출옥하여 1950년부터 본격적인 교화 활동을 진행하다가 1955년에 사망하였다.³⁷⁾

의복제도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형식이기³⁸⁾에 儀禮服飾의 제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내적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거울이다. 그리하여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의복제도를 마련하여 의복을 통해서 의리를 표현하고 몸의 威儀를 갖추어 이로써 사물과 구별을 이루고자 하였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黃色 道袍를 착용하는 몇 분파를 제외하고 甌山敎의 대다수의 분파들은 특별한 儀禮服飾을 갖추지 않고 대부분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것을 입겠다는 강한 民族主體意識의 표현이었으나 敎史가 짧고 敎勢가 미약한 원인도 있다. 그런데 彌勒佛敎는 짧은 敎史, 미약한 敎勢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甌山敎派와는 달리 創敎者에 의해서 儀禮服飾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儀禮服飾에는 敎義 思想이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創敎者의 독특한 복식관이 나타나 있다.

彌勒佛敎의 經典인 『降化大全』에서 보면 “의복

을 잘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일반이 의심할 수가 있다”³⁹⁾고 하여 의복을 소유의 상징물로 보고 종교인으로써 지녀야 할 검소한 마음가짐을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인간을 小宇宙로 인식하고 의복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표현하고자 했다.

“衣食制度는 理致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到今은 理致는 하나도 없어졌으나 우리는 理致를 따라 가야 나가야 한다.”⁴⁰⁾

“우리 사람은 그 理致를 받아서 살아 가는 것이요. 天地에서는 수많은 이치를 정하였는데 인간은 잘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四色을 崇尚하여야 하오. 只今부터 라도 東方 三八運을 받은 사람은 靑衣를 입고 南方을 차지한 사람은 赤色을 입고 西方을 차지한 사람은 白色을 입고 北方을 차지한 사람은 黑色을 입고 그리하여야 外國人이 보더라도 文明國사람이라고 할 것이요.”⁴¹⁾

“衣服도 色服을 獎勵하여야 할터이니 今後는 色服을 입고 이 자리에 와주기를 바란다. 어찌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理致를 받아서 사는데 衣服은 理致的으로 五色을 입어야 하고 文明은 반드시 衣服을 보아서 알 수가 있으니 우리 宗教家로서는 나쁜 風俗을 고쳐야 한다. 速히 宣傳하여 色服으로 改着케 하며”⁴²⁾

이와 같이 색상있는 옷입기를 음양오행의 이치를 들어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대다수의 일

35) 홍범초, 앞의 책, p.226

36) 홍범초, 앞의 책, p.223

37) 김홍철, 김상일, 조홍윤, 앞의 책, p.105

38) 정혜경, “한말 위정척사 사상기의 복식문화 소고”, 복식 제4호, 1995, p.51

39) 강화대전, 원광사, 1987, p.37

40) 강화대전, 앞의 책, p.204

41) 강화대전, 앞의 책, p.101

42) 강화대전, 앞의 책, p.141

반인들이 선호하는 백색위주의 의생활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한 사회개혁사상의 반영이며, 色服을 착용해야 만이 문명국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 인식은 의복을 문명의 정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명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는 後天開闢思想의 표현이다.

甌山이 유교의 喪服制度를 보고 거지 죽은 귀신이 지은 것이라고 하여 儀禮의 개혁을 추진하며 그의 宗教合一思想에서 儒教를 佛敎보다 하위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듯이 彌勒佛敎에서도 儀禮에 있어 儒敎보다는 佛敎의이다.

“儒家の 道袍는 佛家の 長衫만 못한 것이니라. 사람은 因果를 알지 못함으로 雫이 없는 사람이 없다.”⁴³⁾

“너희가 잠중노릇을 하여야 한다. 念珠도 장만 하는데 東方三八運으로 三八珠로 하여라. 앞으로 오는 時代는 중이랴야 上等 사람이 된다. 念珠도 禮式으로 致誠때 만 가지게 하고 平常時에는 亂雜하게 使用을 아니 하여야 한다.”⁴⁴⁾

한편 本敎에서 의복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가 하는 가치는 그들의 儀禮服飾에 대한 祥禮文과 그들이 儀禮服飾을 만들 때에 올린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胞衣는 세상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 개 월 間 있다다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바 이것이 부처님의 根源이므로 胞衣는 어머니의 지극 정성한 胎 가운데의 물의 근원이라. 正服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상서로움으로 代代子孫에 근원하여 도덕의 본체를 傳受함으로 正服이라 한다. 어머니가 주신 胞衣와 아버지가 주신 正服과 三八應한 念珠와 하늘과 땅의 數에 응한 短珠는 천지부모님에게서 상서롭게 받은 것이니 자주 생각하여 잊지마라.”⁴⁵⁾

이와 같이 의복을 제 2의 피부로 인식하고 儀禮服에 우주의 이치를 담아 외형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고자 했던 創敎主의 복식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經典에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의복이라는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思想을 전달하고자 한 바는 현재의 儀禮服飾의 명칭과 형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圖 1) 미륵불교 의례복식을 착용한 알 모습

43) 강화대전, 앞의 책, p.200

44) 강화대전, 앞의 책, p.202~203

45) 강화대전, 앞의 책, p.418

“胞衣는 母之服中 胞胎十個月 落地源으로 世界人生하여 佛之源이라. 胞衣는 母之胎中之水源이라. 正服은 父至祥受로 代子連源하여 道禮傳受함으로 正服이라. 염주단주는 彌勒佛大道를 念 念不忘하고 어머니가 주신 胞衣나 아버지가 주신 正服과 三八應한 念珠와 天數 地數 應氣한 短珠는 天地父母任이 祥受한 것이니. 念 念不忘하라.”



(圖 2) 미륵불교 의례복식을 착용한 뒷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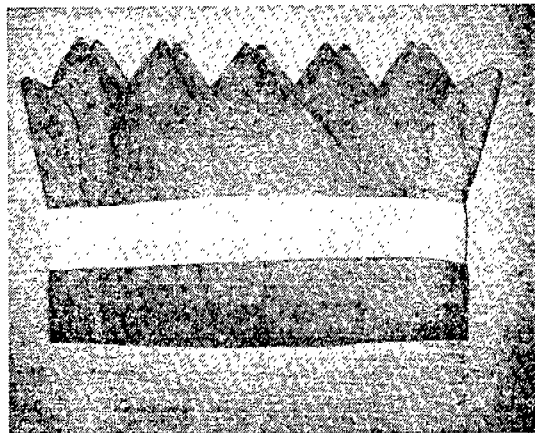
2. 儀禮服飾에 나타난 思想

彌勒佛教의 現行 儀禮服飾은 머리에 쓰는 冠帽인 仁和冠과 袍衣인 正服, 카톨릭 예전복의 깁바처럼 두르는 형태의 袍衣로 구성되며 여기에 念珠와 短珠가 부속품으로 첨가된다. 儀禮服飾은 敎인들의 職位나 法位의 上下 또는 男女의 구별없이 모든 敎인이 평상복 위에 正服을 입고 袍衣를 두르며 仁和冠을 착용하여(圖 1, 圖 2 참조) 既成宗教에서와는 달리 新宗教에서 나타나는 평등사상이 儀禮服飾에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儀禮服飾의 構成과 名稱, 형태에도 이러한 思想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仁和冠

仁和冠(圖 3)에 대하여 『報恩祥禮大全』⁴⁶⁾에 “冠은 본다는 뜻이다. 위로 天道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보아서 마음을 公明正大하게 하여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아래로 地道의 너그롭고 후함을 보아서 마음을 넓고 크게 하고 가운데로는 人道의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뜻과 형세를 보아서 마음을 평등케 하여 나와 남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命名하여 말하기를 仁和冠이라 한다”⁴⁷⁾라고 하여, 彌勒佛教에서 착용하는 冠을 ‘仁和冠’이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명칭이 주는 의미는 冠을 착용한 者は 하늘의 公明正大함과 땅의 寬厚함과 인간의 情을 본받아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는 삼위일체 정신의 발로이다. 아울러 하늘의 상징인 道教, 땅의 상징인 佛教, 인간의 상징인 儒敎가 서로 조화롭게 화합하고자 하는 三敎合一思想의 정신을 冠의 명칭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彌勒佛教의 冠은 人和·儒敎·禮節 등의 개념과 天, 地, 人 중에서 人을, 父·母·我 중에서 自我를 상징하기도 한다.



(圖 3) 仁和冠

仁和冠의 형태는 원통형으로 위는 트이고 10개의 봉우리와 그것을 감싸는 양가장자리의 커다란 2개의 봉우리로 중첩되어 연꽃을 형상화한 蓮花冠 형태로서 고구려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上代の 帑이나 금관 또는 조선시대 童妓들의 髡子冠과 유사한 寶冠類이다. 寶冠 계통 冠帽은 중국의 冠帽을 대표하는 범류관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上代 사회의 지배층의 冠帽로서 독특한 金冠類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원래 시베리아 사만의 민속적 冠帽로

46) 彌勒佛教 總本部刊行 : 총 63항목으로 이루어짐, 창교주 당시부터 행해지던 예식을 한데 묶어 놓은 예전

47) 彌勒佛教 總本部, 『報恩祥禮大全』二 仁和冠 참조

서 사만의 儀禮의 冠帽이다.⁴⁸⁾

이와 같은 형태의 冠은 甌山教團을 비롯한 다수의 新興宗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冠帽 중앙의 10개의 꽃잎은 10천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장자리의 2개의 잎과 만나 12支를 이루고 밑으로 내려와 합하여 원통을 이루어 '仁和'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仁和冠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합하고자 하는 天地人 合一思想 즉 仙, 佛, 儒의 三教 合一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甌山은 人間改造 公事를 통하여 앞으로는 사람이 높아지는 세상이 되어 사람도 天地와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天地人 三合一은 때라 天地人이 다 같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하였으니 天地人 合一은 곧 後天開闢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므로 인간이 서로 화합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주역임을 시사하는 人間中心思想을 내재하고 있다.

(2) 正 服

正服(圖 4 참조)에 대해서 『報思祥禮大全』에 “衣라는 것은 꾸민다는 뜻이다. 바르게 꾸며서 안으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그 입을 바르게 하여 받들어서 우러러 본다. 고로 이룩하여 正服이라고 한다”⁴⁹⁾하여, 正服은 ‘바른 옷’이란 의미에서 命名된 것으로, 正服을 착용하므로써 心身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正服에 형상화시키고 있다.

正服은 모든 교인이 착용하나 그 형태는 남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女子 正服의 형태는 원삼과 비슷하다. 男子 正服의 형태는 직령우입의 袍로서 동그래깃에 직선배래이며 直領처럼 앞위 2중으로 된 쌍선키 달리고 쌍무가 겨드랑이 밑에서 부터

양옆으로 퍼지도록 달려 있다. 옆솔기는 트이지 않고 두루마기처럼 막혀 있다. 소매통은 廣袖衣인 대창의의 袖口보다 훨씬 넓고 길어 長衫처럼 보인다. 특이한 것은 소매의 경우 진동부분이 다 봉합되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부터 진동과 소매가 각각 분리되어 소매 사이로 팔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正服 뒷쪽에는 1.5cm나비의 두줄의 가로선이 있어 각기 天과 地를 나타낸다.

正服은 天·地·人 중에서 天과 父·母·人에서 父를 상징하며 道의 本體服이며 法服의 主體服이다. 仙·佛·儒중 仙敎의 개념을 상징하는 正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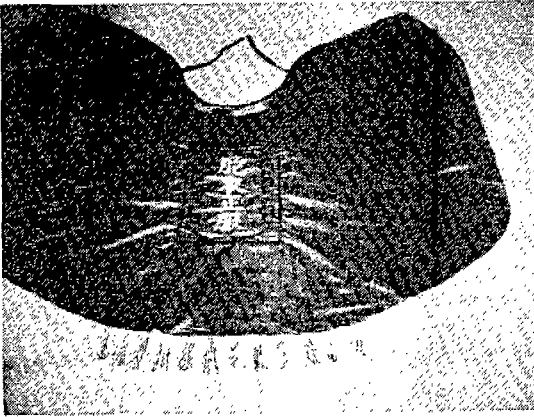
(圖 4) 正 服

은 佛敎와 儒敎의 인 것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모여 형태를 이루어 宗教合一思想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主體服인 正服이 지닌 의미와 명칭은 道敎를 상징하여 道優位의인 新宗教 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8무는 8괘, 4선은 四方을 표상하고 있으니 正服에 우주의 이치를 담고자 하였으며 의복이라는 표현수단을 통하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48) 김동욱, “한국 복식의 기본 구조”,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존 협회, 1982, p.12

49) 彌勒佛敎 總本部, 앞의 책, 四 正服

胞衣(圖 5)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 개월 間 있다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바, 이것이 부처님의 근원이므로 胞衣는 어머니의 지극 정성한 胎 가운데의 水氣의 근원이라”⁵⁰⁾고 하여 胞衣의 명칭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胞衣는 그 字句가 의미하듯이 精誠·어머니·땅·佛敎의 개념을 상징하며 부처님의 근원 자리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胞衣의 형태를 佛敎의 袈裟처럼 걸치는 형식으로 만들어 부처님과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寬厚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圖 5) 胞衣

胞衣의 형태는 가로 150cm, 세로 105cm 정도의 직사각형 포를 세로로 반을 접어 좌우 대칭이 되게 하여 모서리를 굴린 후 앞 부분을 트고 목부위는 파서 끈을 달아 여미도록 되어 있다. 트임부분의 가장자리는 가는 선이 가식되어 있고 뒷중심에는 弓乙字形이 수놓아져 있으며 그 안에는 ‘胞衣正服’이라는 글귀가 수놓아져 있다. 뒤의 도련 부분에는 五色 술을 달아 胞衣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胞衣는 녹색의 공단으로 만들어 正服위에 착용

하며 正服과 합쳐서 ‘胞衣正服’이라고 한다. 여성을 상징하는 胞衣를 正服위에 착용하여 들어나게 한 것은 세상 만물을 여성의 관후함으로 감싸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後天時代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이 향상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胞衣正服’이라고 하는 法服의 명칭에서도 ‘胞衣’를 먼저 사용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彌勒佛敎에서는 儀禮服飾을 단순한 物로 보지 않고 철학적 이념을 불어 넣어 착용자로 하여금 儀禮服飾에 표현된 思想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IV. 결 론

19세 중엽부터 시작되는 민족적 위기속에서 한국적인 종교에 의한 구원의 도리를 주창하며 새로운 思想으로 민중을 이끌어 온 新宗教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儀禮服飾과 思想에 관한 연구로서, 新宗教 思想이 그들의 儀禮服飾을 통해서 어떻게 具現되고 있는지를 甌山敎團의 彌勒佛敎 儀禮服飾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실물자료로서 現在 착용되고 있는 儀禮服飾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대표적인 한국 新宗教의 공통된 思想은 後天開闢思想, 宗教合一思想, 人間中心思想, 民族主體思想, 社會改革思想 등 이다. 이러한 思想들이 儀禮服飾에 구현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甌山敎團의 彌勒佛敎 儀禮服飾은 創敎主에 의하여 직접 제정되어 제도화되었으므로 그의 思想은 물론 新宗教의 思想들이 문헌과 儀禮服飾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먼저, 문헌에 의하면 彌勒佛敎의 創敎主는 의복을 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최고의 수단과 우주의 이치를 담은 이치복으로 인식하여 色服착용을 권장하면서 백색위주의 생활을 개혁하고자 하는 社會改革思想을 나타내고 있었다.

50) 彌勒佛敎 總本部, 앞의 책, 五 胞衣正服

다음으로 現在 착용되고 있는 儀禮服飾을 통해서 보면, 彌勒佛敎의 儀禮服飾은 敎團의 職位나 法位, 男女의 구별이 없이 모든 교인이 '正服'이라는 袍를 입고 '仁和冠'을 쓰고 '袍衣'를 입어 社會改革思想의 하나인 平等思想을 표현하고 있었다. 儀禮服飾의 색상을 모두 청색계로 하여 東方 즉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을 사용한 것은 장차 後天時代에는 한국이 主役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後天開闢思想과 民族主體思想의 표현이다. 仁和冠은 儒敎를, 正服은 道敎를, 袍衣는 佛敎를 상징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儀禮服飾의 구성에도 宗教合一思想이 구현되고 있다.

各各의 儀禮服飾에 구현된 思想을 살펴보면 仁和冠에는 宗教合一思想과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인간이 대우받게 된다는 人間中心思想이 名稱속에 구현되어 있었다. 正服에는 仙優位的 宗教合一思想이 강하게 名稱속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民族主體思想이 형태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다. 袍衣에는 어머니의 개념이 상징되어 後天時代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자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남녀평등의 社會改革思想과 後天開闢思想이 名稱과 형태 속에 나타나 있었다

이상에서 처럼 甌山敎團의 彌勒佛敎 儀禮服飾에는 新宗教의 공통된 思想이 문헌과 복식이 지닌 의미 또는 名稱이나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思想 혹은 그 이상의 思想들이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新宗教의 儀禮服飾이 다소 포괄적이므로 甌山敎團 中の 彌勒佛敎의 儀禮服飾을 중심으로 하여 儀禮服飾에 나타난 新宗教 思想을 고찰해 보았다. 此後에 다른 新宗教團의 儀禮服飾과 思想과의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創敎主의 思想이 반영된 儀禮服飾의 의미가 모든 敎人들에게 인식되어 儀禮服飾을 통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보다 나은 新宗教의 位相이 정립될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報恩祥禮大全, 彌勒佛敎 總本部
- 2) 대순전경, 원광사, 1987
- 3) 강화대전, 원광사, 1987
- 4) 김동욱, "한국 복식의 기본 구조",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존 협회, 1982
- 5) 김태곤외 7인, 한국 종교, 원광사, 1989
- 6) 김홍철, 한국 新宗教 思想의 연구, 집문당, 1989
- 7) 김홍철, 김상일, 조홍운, 韓國 宗教 思想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8) 류병덕, 한국 민중 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 9) 류병덕, 김홍철, 양은용, "한·중·일 삼국 新宗教 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1992
- 10) 백영자, 김미주, "근대 한국복식 분석(1)",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3집, 1984
- 11) 이정립, 甌山思想의 이해, 인동출판사, 1986
- 12) 이현희, "甌山思想의 민족사적 위치", 甌山思想연구 제7집, 1981
- 13) 임상임, "한국 新宗教 儀禮服飾 고찰(Ⅰ)", 복식 제19호, 한국복식학회, 1992
- 14) 정춘화, "甌山思想과 인간성 회복", 甌山思想연구 제1집, 1975
- 15) 정혜경, "한말 위정척사 사상기의 복식문화 소고", 복식 제 4호, 1995
- 16) 탁명관, 한국 신흥종교의 실상, 국종출판사, 1991
- 17) 홍범초, 甌山敎 첫걸음, 한누리,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Ritual Dress and Ideology
in the Korean New Religions
—on the point of Chungsan religious body—

This thesis is a research on ritual dresses and ideology of new Korean religions, primarily centering on the way how religions ideology has been expressed into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representative ideology in new Korean religions is the beginning of the world after the end, religious union, anthropocentrism, ethnocentrism and social reform.

2. The creator of Mirukbulgyo(彌勒佛教) himself made the ritual dress for Mirukbulgyo. Therefore, his thought and the thought new religions are expressed variously on literature and ritual dress. Ritual dress which has been wearing to all the believers, shows the thought of social

reform, also it is not connected with the social position and sex distinction.

That ritual dresses are used the part of blue color, appears the thought of beginning of the world after the end and ethnocentrism. The organization of all the dresses contains the ideology of religious joined-one.

Each dress embodies the ideology of religious union and anthropocentrism in its Inhwagwan(仁和冠). Chungbok(正服) contains the ideology of religious union which Taoism predominates and ethnocentrism. P'oui(胞衣) contains the ideology of beginning of the world after the end and the ideology of social reform.